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결과

---

'04. 7. 2(금)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음.
  - 금년 10월중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설계,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관련 기술지원 등을 협의하고 5개항에 합의
- 북측 경의선·동해선 분계역사 등의 건축계획설계 및 향후 일정 합의
  - 현장조사시 검토한 기술적 사항을 바탕으로 철도 개통후 열차운행에 필요한 규모의 건축계획설계 확정
    - \* 경의선·동해선 현장조사('04.4.17~19, 4.27~4.29), 추가기술협약('04.5.27~5.29)
  - '05년 철도 개통 일정을 고려, 8월초순 기초도면, 9월말 실시설계를 확정하는 일정 합의
- 금년 10월 도로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키로 합의, 금강산 당일관광, 개성공단시범단지 입주 등에 따른 원활한 운행 지원
  - 도로 가로등,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을 제공, 남북 도로 운행의 안전성 제고

- 신호·통신·전력계통 등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에도 합의
  - 8월초순 분계역사 건축기초공사를 위한 기술지원, 7월하순 신호·통신·전력계통 시공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 우리측 설계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 예정
  - 고장장비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도 지속 실시, 제공 장비의 사용 투명성·효용성 제고
  
- 지난 제9차 경추위에서 합의한 금년 10월 경의선·동해선도로 개통, 철도 시험운행을 재확인하고
  - 이를 위해 분계역사 건축설계 일정 및 자재지원 등에 합의 함으로써
  - 철도·도로 건설이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특히, 우리측 왕래 인원들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앙 분리대,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
  - 이미 지원키로 합의된 자재·장비의 품목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측이 제공

##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10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계획설계를 확정하고, 남측은 9월말까지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를 제공한다.

남측은 북측 분계역사 등 건축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 도면을 8월 초순 북측에 제공한다.

쌍방은 분계역사 등의 건축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건축시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2. 남측은 10월 중 도로 개통에 필요한 도로 안전용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은 자재 제공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① 분계역사 등 건축과 관련한 기술지원은 8월 초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경의선·동해선에서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②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와 관련한 장비 설치 및 시공 부분 기술지원은 7월 하순부터 진행하며, 남측 기술지원 인

③ 제공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10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11차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동해선에서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각 10일씩이며, 남측 기술지원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 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본 합의서 부록과 같이 조정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차기 회의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4년 7월 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경제공업성 부상 최영건